

[LT03] 대형광학망원경(KLT)의 과학 임무와 제원

안상현¹, 김호일¹, 박병곤¹, 성현일¹, 이동욱¹, 천무영¹, 한정열^{1,2}, 김상철¹, 김영수¹
¹한국천문연구원, ²과학기술연합대학원

2006년 7월에 멕시코 푸에블라에 있는 INAOE에서 개최된 기에르모-아로 천체물리학회에서 한국과 멕시코는 각각 천문학계에 KLT에 관한 과학적 관심사와 그에 따른 망원경 및 관측 기기의 제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제원을 설정할 것을 결의하였다. 그때까지 비교적 확실하게 파트너들 사이에 동의된 사항은, 먼저 건설될 1호기는 표준시야 망원경(SFT)으로서 측광 및 분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관측기기를 탑재한다는 것이다. 또한 2호기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호기와 몇 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건설하되, 1.5도의 광시야를 갖고 분광 서베이를 주로 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광시야 망원경(WFT)을 구상한다는 것이었다.

한국천문연구원의 대형망원경 사업그룹은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천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며, 그에 따라 몇몇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므로, 먼저 허수아비 관측기기(Strawman instruments)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자세하고도 적합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2006년 8월 11일에 천문학계 전체에게 요청하였다. 의견 제출은 9월 20일까지 마감하였으며, 이번 발표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한국대형망원경과 관측 기기의 전망에 관해 발표하려 한다.

[LT04] 대형 광학망원경 1호기의 관측기기 : Strawman Instrument Design

천무영¹, 성현일¹, 안상현¹, 이동욱¹, 한정열^{1,2}, 김상철¹, 김영수¹, 김호일¹, 박병곤¹
¹한국천문연구원, ²과학기술연합대학원

한국천문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대형 광학망원경은 주경 직경이 6.5 m인 망원경으로서 시야각을 달리하여 광시야, 표준시야 등 2기로 구성되었다. 이중 먼저 건설하기로 한 1호기 표준시야 범용 망원경에서 활용될 주요 관측기기의 주요사양을 설명한다. 또한 전체 천문학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관측기기 관련 과정을 논의해 본다.